



“한국 귀화해 프로 배구 선수로 뛰고 싶어요”

몽골 프로 배구 선수 출신 조선대 배구팀 오랑바야르

올해 조선대 스포츠 산업학과 입학...페퍼스 염어르형 선수가 롤모델 프로선수였던 아버지 닮고 싶어 배구 시작...파워 앞세운 공격력 강점

“페퍼스 염어르형처럼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인 배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몽골 프로 배구 선수 출신으로 올해 조선대 배구팀에 합류한 오랑바야르(20)의 목표다. 스무살의 젊은 패기로 가득한 그는 올해 조선대 스포츠 산업학과에 입학했다.

최근 조선대 배구 경기 코트 위에서 만난 그는 14번 등번호가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자랑스레 내보였다.

오른손으로 배구공을 바닥에 세번 내리치고, 천장으로 공을 띄운다. 높이 떠오른 공을 응시하며 왼발, 오른발 스텝 세번을 밟는 동시에 학처럼 날아올라 공을 때린다. 몽골에서 온 조선대 배구팀 아웃사

이트 히터(레프트) 오랑바야르의 197cm 높은 신장에서 내리 쏘는 서브 루틴이다.

그는 ‘한국 프로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다. 페퍼스 염어르형이 그의 롤모델이다.

신장 195cm의 염어르형은 페퍼스의 미들블로커다. 염어르형 역시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2022년 9월 귀화시험에 합격했고 그해 페퍼스에 합류해 프로 배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염어르형처럼 귀화 시험에 합격해 한국 프로 배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목표다.

몽골 프로 배구팀 SG Hawks에서 선수로 뛰었던 그는 지난해 몽골을 떠나 한국에 왔다.

한국 프로 배구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오랑바야르

를 눈여겨 본 SG Hawks 관계자가 평소 연이 있던 조선대 배구팀을 추천했고, 박성필 조선대 배구팀 감독의 러브콜까지 더해지면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것.

지난 11일 홍익대에서 열린 2025 KUSF 대학배구 U리그 맞대결에서 조선대는 홍익대 배구팀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 오랑바야르의 대학팀 첫 경기로, 그는 5세트동안 총 40점을 올렸고 63%에 달하는 공격 성공률을 보이면서 실력을 입증해 보였다.

그는 5살이 되던 해 배구공을 처음 잡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작은 손에는 자석처럼 배구공이 붙어있었다. 배구에 대한 열정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 몽골 프로팀 선수였던 아버지가 코트 위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늘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

한 번도 집을 떠나 생활해본적 없다는 그의 한국행은 20살 인생에 큰 결심이다.

오랑바야르는 “연고도 없는 한국행이 외로울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국 선수들과의 활동이 기대

가 된다”고 웃어보였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선수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크스의 아웃사이드 히터 허수봉.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허수봉을 보며 한국 프로팀에 대한 꿈을 키웠다.

오랑바야르가 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영어 통역을 도맡고 있는 같은 배구팀 동기 이율(20)은 그의 팀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이율은 “오랑바야르는 실점하거나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올리려고 하고, 늘 파이팅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필 감독은 오랑바야르의 강점으로 ‘파워’를 꼽았다. 또 레프트 포지션에도 서브 리시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 감독은 “오랑바야르가 온 뒤로 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다. 보통 몽골에서 한국행을 결심할 때는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랑바야르는 이미 모든걸 마스터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한국, 승부차기 끝 타지키스탄 제압...U-17 아시안컵 4강 진출



정현웅이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린 타지키스탄과의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8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도네시아 잡고 4강 안착

우리나라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승부차기 혈투 끝에 타지키스탄을 누르고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타지키스탄과 8강전에서 전, 후반을 2-2로 비긴 뒤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이겼다.

인도네시아와 첫 경기를 0-1로 패해 불안하게 대회를 시작한 한국은 이후 치른 3경기에서 모두 웃으면서 4강행 티켓을 따냈다.

2023년 태국에서 열린 직전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해 준우승에 그쳤던 한국은 2개 대회 연속 결승행에 도전한다.

8강에서 일본을 제압하는 이변을 쓴 홈팀 사우디아라비아와 4강전은 오는 17일 오후 11시 오카드 스포츠 클럽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다.

우리나라의 이 대회 마지막 우승은 2002년으로, 당시 승부차기 혈투 끝에 예멘을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반면 D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랐던 타지키스탄은 한국을 넘지 못하고 8강에서 짐을 썼다.

한편 북한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6-0으로 대파하고 4강에 안착했다.

조별리그에서 한 수 위 전력으로 평가됐던 우리나라를 1-0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킨 C조 1위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대패하며 8강에서 발길을 돌렸다.

북한의 마지막 U-17 아시안컵 우승은 2014년 태국 대회로, 당시 한광성 등이 활약한 북한은 결승에서 한국을 2-1로 제압한 바 있다.

북한의 4강 상대는 아랍에미리트를 3-1로 누른 우즈베키스탄이다. 두 팀은 오는 18일 오후 2시 15분 킹 파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결승행을 다룬다.

한국과 북한 모두 결승까지 살아남는다면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남북전’이 성사된다. /연합뉴스

‘광주FC 우승 기원’ 조빈, ACLE 응원곡 공개

16일 코리아컵 홈경기 특별 공연
광주유소년 응원곡 등 3번째 발표

광주FC 홍보대사 노라조 조빈이 광주의 ACLE 우승을 기원하는 응원가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선보인다.

광주는 16일 오후 12시 조빈의 두 번째 ACLE 응원곡 ‘나의 아들이!’를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고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지난해 8월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Let’s fly Let’s shine, Gwangju’에 이은 두 번째 ACLE 응원곡이다.

조빈은 ACLE 8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광주 선수단과 팬들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곡을 만들었다.

조빈은 “이 노래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함께 나아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진심 어린 가사와 감동적인 멜로디가 선수들에게는 격려가, 팬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빈은 팬들 앞에서 특별 공연도 갖는다.

조빈은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경주한수원FC와의 코리아컵 3라운드 홈 경기를 찾아, 하프타임 때 특별 공연을 갖고 응원곡을 공식 발표한다.



한편 조빈은 앞선 8일에는 광주 유소년팀 응원곡 ‘게임체인저스’를 공개하는 등 광주 홍보대사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연승 이끈 알베르피, K리그2 7R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연승을 이끈 알베르피(MF)가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K리그2 7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11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알베르피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알베르피는 지난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화성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36분 골을 기록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알베르피는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후반 추가 시간에 화성 보이노비치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 알베르피의 득점 덕분에 2-1 승리를 거뒀다. 앞선 부산전 1-0 승리에 이은 연승이다.



후이즈는 이날 3개의 슈팅을 날렸고,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성남 공격을 이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선수단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활약

금4·은1·동2...홍성 김창주·이경진 국대 1차전 선발 자격 획득

전남선수단이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에서 활약했다.

부안 격포항에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 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초등부 경기에서는 옵티미스트 부문 박다울(보

성비봉마리나요트·5년)이 여자부 1위를, 최운호(여수공공스포츠클럽·5년)가 남자부 3위를 기록했다.

중·고등부 남자부부문에서는 ILCA6(국제 레이저급 dinghy 요트 6형) 부문 박준수(보성비봉마리나요트·1년)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같은 부문에

서 주현성(여수고·1년)은 2위를, 임우준(보성비봉마리나요트·3년)은 3위를 차지하며 메달을 더했다.

고등부 경기 ILCA7(국제 레이저급 dinghy 요트 7형) 부문에서는 김종휘(여수고·3년)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대학일반(혼성) 470 복승 dinghy 요트 분야에서는 김창주(여수시청)-이경진(여수시청)이 1위를 차지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창주와 이경진은 국가대표 1차전 선발 자격을 획득했다. /김다민 기자 kd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송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